

국어과 교육과정과 정보통신기술(ICT)의 통합을 위한 내용 체계 고찰

서 유 경*

<차례>

1. 서론
2. 관련 논의의 범주
3. 정보통신기술과 국어교육의 통합적 관계 설정을 위한
교육과정 체계 비교
4. 정보통신기술과 국어교육의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구안
5. 향후 과제

1. 서론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지식정보 사회로의 변화 바람은 국어교육 내에서도 매체 도입 가능성 모색을 활발하게 하고, 새로운 국어교육의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일으켰다.¹⁾ 이제는 이러한 지식정보 사회의 도래에 대한 기대나 우려의 목소리보다는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 개별 연구자에 의한 접근은 이미 있었지만, 국어교육 연구 현장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인터넷 매체의 도입과 활용을 다룬 것은 1998년 봄 한국국어교육연구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여러 학회와 연구자들에 의해 국어교육에서의 매체 활용 문제, 더욱 좁게는 인터넷의 국어교육적 활용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지는 단계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서 인터넷 매체와 국어교육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이나 국어교육적 활용 방법 연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활발한 논의의 접근이 매우 다른 차원에서 다양하게 동시에 이루어진 국면이 있어, 정확히 국어교육의 어느 지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인지가 불분명하게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제까지 이루어진 인터넷의 국어교육적 도입과 활용에 대한 논의는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어교육에서 인터넷이나 여타 매체의 도입이 본격화된 이 시점에서 정확한 논의의 지점을 밝히고 국어교육과 이들 매체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어떠한 층위에서 어떤 범주로 다루느냐에 따라 다른 논의가 가능하며, 그 결론 역시 상반적일 수 있다.²⁾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제까지의 매체와 국어교육, 더욱 좁혀서 인터넷과 국어교육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공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에서 인터넷을 도입하고 활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보통신기술과 국어교육의 관계 설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지금 인터넷 혹은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적 접근은 단순한 교수-학습의 도구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사이버교육' 혹은 'e-Learning' 등 전격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전제로 하는 교육 내용의 개발과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수-학습 체제 혹은 교육 환경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교육 내용이나 방법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그렇다고 하여 본고에서 이러한 기존의 학교 체제와 별도로 존재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어교육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오히려 국어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의 유기적인 통합³⁾을 통해 인터넷

2) 단적으로 교육의 일반적 요건인 학습자의 수준이나 교육 내용의 특성, 교육 환경 등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인터넷의 교육적 효과나 도입 방법 등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3) '유기적 통합'이라는 표현은 이제까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국어교육에 부가적으로 붙어

의 국어교육적 도입이 가치 있는 효과를 거두고 결국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국어교육에 실질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부족한 이 한편의 글로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 국어교육에 의미 있는 논의의 첫걸음을 디딜 수 있기를 바란다.

2. 관련 논의의 범주

국어교육에 인터넷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매체의 부상과 국어교육적 활용 문제⁴⁾, 제도 교육 부분에서의 교수-학습 방법과 교재론 중심의 논의와 비제도교육 부분에서의 언어 사용, 문학 생산과 수용 등의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

있는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의 발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인터넷과 국어교육의 관련성이 단지 교수-학습의 도구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용 차원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과정과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개별적으로 접합된 듯한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실제적인 교육의 현상이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데에 초점이 있다.

- 4) 여기에 해당되는 논의는 주로 새로운 매체의 속성을 규명하고, 그러한 매체의 속성에 기반하여 국어교육적 원리를 탐구하거나 국어교육 전반에서의 도입 방법을 다루고 있다. 김대행, 『국어교육과 미디어 교육』,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 98한국국어교육연구회 봄 학술대회 발표 자료, 1998; 김동환 외,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매체언어의 소통원리와 교육적 대상화의 방법』,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0; 류수열, 『매체 경험의 국어교육적 의의-판소리의 하이퍼텍스트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선청어문』, 2001; 최병우, 『문학교육에 있어 다매체 환경의 활용』, 문학교육학회, 『문학교육학』 제2호, 1998; 최영환, 『매체의 변화와 언어기능 교육의 역동화』,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 98한국국어교육연구회 봄 학술대회 발표 자료, 1998 등 참조
- 5) 기존의 논의들이 논의에 앞서 이러한 구별을 짓고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서로 다른 이 두 범주는 별다른 구분 없이 함께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우선적으로 제도 교육에서의 활용인가 비제도 교육에서의 활용인가를 구분하여 다루는 것이 국어교육에서의 인터넷의 활용이나 도입 방법 논의를 보다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인터넷을 제도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과 관련지은 논의에서는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⁶⁾, 기존의 국어과 교재에 있어서 새로운 교재로서 인터넷 및 컴퓨터 기반의 전자 교과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⁷⁾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비제도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을 상징하고 인터넷 매체를 다루는 경우는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가상 공간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언어 활동의 특성, 사이버 문학 생산과 향유, 문학 활동 공간의 전이 등을 다루었다.⁸⁾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터넷과 국어교육에 대한 논의는 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 관련성을 탐색하고, 도입 및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도 교육의 틀로서 국어교육에 관계되는 인터넷은 교수·학습의 도구나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담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고, 비제도교육의 틀 안에서는 국어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이버 공간의 문화적 속성과 특성, 문학 생산과 향유의 측면에서 본 특수성과 보편성 등을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하고도 포괄적인 분야 중에서도 제도 교

-
- 6) 대부분의 정보통신기술 활용(ICT) 관련 논의가 여기에 포함된다. 최병우 외,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매체 언어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0; 김근수 외, 『국어과에서의 ICT 활용 교육 방법 연구』, 한국교육기술정보원, 2001; 이채연, 「WBI를 이용한 국어교과 개별화 수업설계와 활성화 방안」,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국어교육』 96호, 1998; 줄고, 「국어교육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인터넷 매체와 국어교육』, 역락, 2002 등 참조
- 7) 교과서 관련 논의가 주로 여기 해당된다. 김수정, 「한국어 교사를 위한 멀티미디어자료 개발에 대한 소고」,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국어교육』 106호, 2001; 이채연, 「인터넷의 매체 언어성과 국어 교재화 탐색」,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국어교육』, 2001; 최미숙, 「정보화 시대의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 '매체(media)'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 2000; 줄고, 「국어과 전자 교과서의 개발 방향 연구」, 『인터넷 매체와 국어교육』, 역락, 2002 등 참조
- 8) 박인기, 「사이버 문학과 문학교육」, 문학과교육연구회, 『문학과 교육』 제5호, 2001 봄; 최지현,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문학 생활화 방안」, 문학교육학회, 2002 봄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신동훈, 「사이버 세상과 문학적 소통」, 문학과교육연구회, 『문학과 교육』 제5호, 2001 봄; 줄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학교육」, 문학과교육연구회, 『문학과 교육』 제5호, 2001 봄 등 참조

육으로서의 국어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인터넷 혹은 정보통신기술을 국어교육에 통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국어교육의 내용과의 통합을 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연구 경향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까지의 인터넷과 국어교육에 대한 접근은 주로 도구적 활용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⁹⁾ 이렇게 도구적, 방법적 차원에서 주로 접근하다보니, 인터넷의 활용으로 인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국어교육 내용 부분이 간과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¹⁰⁾

이러한 특성은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시점과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 지침’이 시행된 시점,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본격적 활용 시점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정보통신기술 소양 및 활용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이 완료 이후이어서,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술 교육 관련 사항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부가적으로 덧붙여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교육은 교육의 실제성과 구현을 고려하면 원론적으로 교육과정 총론 차원이 아닌 개별 교과와 내용 및 방법 차원과 실질적인 관련을 가져야

-
- 9) ICT 활용 방법을 논하는 연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용 방법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존의 국어교육 내용과의 중복, 효율성 검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10) 물론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이후로 아직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변화해야 할 국어교육의 내용 부분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러한 연구 결과가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화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용을 지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 원인을 알고 있는 필자로서 이러한 국어교육에 정보통신기술 활용 도입을 교수·학습 방법이 아닌 내용 차원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교수·학습의 방법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국어교육의 내용 차원과 관련되는 부분을 명확히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만, 특정한 국어교육의 내용을 교수·학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기 때문이다.

한다. 그러나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은 총론 차원에서는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고려한 개정의 목적과 새로운 교육적 관점의 도입이 역설되어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개별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개정의 목적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상관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보통신 기술 활용의 필요성이 언급되거나¹¹⁾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활동들이 기술되는 수준에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를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좁혀서 보면,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6차 교육과정과 동일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영역 안에서 정보통신기술 교육 관련 부분이 산발적으로 항목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기존의 국어교육 내용과 정보통신기술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상세 내용 기술의 한 부분으로만 들어가 있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이러한 국어과 교육과정상의 내용 체계 및 내용과 정보통신기술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체계 및 내용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인터넷/정보통신기술과 국어교육이 실질적으로 중복없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3. 정보통신기술과 국어교육의 통합적 관계 설정을 위한 교육과정 체계 비교

(1)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정보통신기술 관련 내용

국어교육에 인터넷의 활용 즉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합한 국어교육의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속에 들어

11) 소경희, 전은화, 『21세기 정보 사회 대비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정보기술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61쪽

가 있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부분을 살펴보고¹²⁾, 정보통신기술 교육에서 적시하고 있는 소위 정보통신기술 교육의 내용을 비교하여 국어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내용을 추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루어진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 논의와 교수-학습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교수-학습 방법 차원에 제한되지 않고 국어교육의 내용상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추출,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항목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3학년

- <쓰기> (7) 글을 컴퓨터로 옮겨 쓴다
 [기본] 글씨판을 보면서 자신이 쓴 글을 컴퓨터로 옮겨 쓴다.
 [심화] 글씨판을 보지 않고 자신이 쓴 글을 컴퓨터로 옮겨 쓴다.

4학년

- <쓰기> (8)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다.
 [기본]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다.
 [심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방법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글로 쓴다.

5학년

- <쓰기> (9)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컴퓨터로 편집한다.
 [기본] 글자의 모양, 크기, 문단 모양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보기 좋게 컴퓨터로 편집한다.
 [심화] 그림이나 사진, 표 등을 넣어 자신이 쓴 안내장이나 신문기사를 보기 좋게 편집한다.

12) 국어 교과서가 아닌 국어과 교육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교육과정간의 비교 고찰을 시도하는 것은 교과서의 개발이나 제도교육에서 실제적인 국어과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근본 토대는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과서나 기타 교재를 개발할 때에는 이 교육과정상의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활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의 체계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7학년

- <말하기> (2)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내용을 선정해 말한다.
 [기본]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 말한다.
 [심화]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종류와 활용법 등을 알아본다.

9학년

- <읽기> (6)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찾아 활용하는 습관을 지닌다.
 [기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글의 이해도를 높인다.
 [심화] 영상 매체나 청각 매체 등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토의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통신기술 교육 관련항은 3, 4, 5학년의 '쓰기' 영역과 7학년의 말하기 영역, 9학년의 읽기 영역에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9학년의 읽기 영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굳이 정보통신기술과 관련 있는 항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진술된 내용 있는 그대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글의 이해도를 높이거나, 이러한 방식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토의한다고 할 때에 '다양한 매체'는 그야말로 현대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매체를 포괄하는 진술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어과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항목은 3, 4, 5, 7학년에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3, 4, 5학년의 내용은 '쓰기'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쓰기' 영역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진술도 모두 '컴퓨터'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쓰기 활동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상 '연필'이나 '펜'으로 쓰던 것을 '컴퓨터'로 쓰는 대체적 활동에 그치고 있다.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3학년의 '글을 컴퓨터로 옮겨 쓴다' 나 '자신의 글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쓴다', '자신의 글을 컴퓨터로 편집

한다'는 활동 등이다. 이는 어떤 글을 연필로 옮겨 쓰거나 자신이 쓴 글을 보기 좋게 다듬는다거나 연필이나 펜을 이용하여 글을 쓰는 등 단지 쓰는 도구를 바꾸는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 물론 3, 4, 5학년이라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고차원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이 단지 쓰기 도구를 바꾸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쓰기 도구를 바꾸는 정도의 수준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의 수준에서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인터넷 매체의 활용이 다루어져야 보다 체계적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3, 4, 5학년과 같은 저학년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쓰는 도구를 바꾸는 정도로 하더라도, 그 이상의 고학년에서는 실질적인 정보를 지식으로 구성하는 활동이나 생산하는 활동으로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2) 정보통신기술 교육 내용과 국어교육의 관련성 탐색

정보통신기술 교육내용과 국어교육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 지침¹³⁾에 나타난 내용 체계를 살펴보고자 하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 교육의 내용은 정보의 이해와 윤리, 컴퓨터 기초, 소프트웨어의 활용, 컴퓨터 통신, 종합활동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이 영역에서의 내용 수준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계는 2년을 상정한 것으로 1단계는 초등학교 1~2학년, 2단계는 초등학교 3~4학년, 3단계는 초등학교 5~6학년, 4단계는 중학교 1~2학년, 5단계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 교육의 내용 영역으로 볼 때, 국어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정보의 이해와 윤리', '소프트웨어의 활용', '컴퓨터 통

13) 여기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0년도 8월에 고시한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 지침」을 참조한 것은, 이 지침마저도 시의성이나 적절성에 문제가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보통신기술 교육의 내용을 살펴기에는 가장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신'이라 할 수 있다.

영역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정보의 이해와 윤리	- 정보기기의 이해 - 정보와 생활	- 정보의 개념 - 정보윤리의 이해	- 정보 활용의 자세와 태도 - 올바른 정보 선택과 활용	- 정보 윤리와 저작권 - 정보화 사회의 개념 이해	- 건전한 정보의 공유 - 정보화 사회와 일의 변화
컴퓨터 기초	- 컴퓨터의 구성 요소 - 컴퓨터의 기초 작동 방법 - 컴퓨터와 건강 - 컴퓨터 기본 관리	- 운영 체제의 기초 - 컴퓨터 바이러스의 이해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이해 - 운영체제 사용법 익히기 - 유틸리티 프로그램 활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운영체제의 종류 알기 - 프로그래밍의 기초
소프트웨어의 활용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학습	-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자료의 작성과 관리 - 멀티미디어의 기초 - 프리젠테이션의 기본 기능	- 워드프로세서의 고급 기능과 활용 -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 프리젠테이션 활용	- 스프레드시트 활용 - 데이터베이스 기본 기능 - 멀티미디어 활용	- 다양한 형태의 자료 통합하기 - 데이터베이스 활용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본 사용 방법	전자우편과 정보 나누기	전자우편 관리와 인터넷 환경 설정	- 사이버 공간 참여 및 활동 - 다양한 정보 검색과 활용
종합 활동		통신을 이용한 자료 수집과 활용	- 정보 검색 및 활용 - 협동 프로젝트 학습	- 자료 형태 변환하기 - 홈페이지 작성	- 인터넷 학급 신문 만들기 -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

‘정보의 이해와 윤리’ 영역은 정보를 수용,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윤리를 배우는 영역으로, 국어교육에서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윤리적 생산으로 관련된다. 정보통신기술이나 여타 매체 자료를 국어교육에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강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수용자의 ‘비판 활동’이다. 여기서 ‘비판 활동’은 단지 글이나 보기 자료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 수용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거나 지식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수용자 스스로의 검열을 거치는 단계까지 포괄한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이나 매체 교육 관련 논의에서 ‘비판적 사고’ 활동이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것도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 시대로 들어오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다른 누군가에 의한 지식의 수용 및 전이가 아닌 자발적, 자율적 정보 수용 및 지식 생산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보통신기술을 국어교육에 도입함에 있어서 ‘비판 활동’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활용’ 영역에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워드 프로세서의 기초적 기능을 익히는 내용이 국어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어과 교육과정의 3, 4, 5학년 ‘쓰기’ 영역에 들어가 있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컴퓨터를 이용한 글쓰기이다. 그렇다면 여기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 지침에 나타난 내용을 반드시 이수한 이후라야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여기의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현재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교수-학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정보통신기술 교육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워드 프로세서 관련 기초 기능 익히기는 2단계 즉 3~4학년의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학년 단계가 겹쳐, 이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개발한 교재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시기와 국어 수업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시기가 다를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교육 내

용이 수업 시간에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 환경이 얼마나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수업이 가능한지도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서로 다른 교과 교육 내용 간의 시기 조절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국어교육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컴퓨터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하는 내용은 다른 교과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컴퓨터 교육 통해 다루어진 이후에 교육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 가능성과 효과에 중대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컴퓨터 통신’ 영역의 경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검색이라든지 전자 우편을 이용한 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학습자 활동 등 ‘컴퓨터 통신’의 대부분의 내용은 국어교육에서 다양하게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특히 국어교육의 내용이 쓰기와 읽기 등 언어적 의사소통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교육의 내용 영역은 한편으로 컴퓨터 교육의 주요 내용 중 소양 교육과 관련이 깊다. 정보통신기술 교육의 내용은 크게 소양 교육과 활용¹⁴⁾ 교육으로 나뉘는데,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 지침은 특히 기초 소양 교육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초 기능을 익히는 단계를 벗어나 실제적인 적용 과정을 교수-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소양 교육을 위한 교육이라 하더라도 활용 교육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진다.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 실제로 읽고 쓰는 과정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더욱 그러하다.

소양 교육이라면 컴퓨터나 인터넷 매체 자체에 대한 교육이므로 당

14)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에서 활용 교육 역시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운영 지침 상의 내용 영역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체계나 내용이 아니라 개별 교과 교육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교수-학습 활동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정보 탐색	○ 정보 비교·분류·분석	○ 정보 안내(수업 자료)
○ 웹 설문 조사	○ 웹 토론 학습	○ 공동 협력 연구
○ 전문가 교류	○ E-PALS	○ 정보 저작(웹 출판)

연히 컴퓨터 교과와 묶이라 할 수 있지만, 활용 교육의 경우 컴퓨터 교육만으로는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개별 교과와 내용과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보통신기술 소양 교육과 활용 교육은 엄격히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소양 교육은 컴퓨터 교육의 묶으로, 활용 교육은 개별 교과와 묶으로 두어야만 정보통신기술이 지금과 같이 개별 교과 교육에서 수단적 차원으로 걸도는 한계를 넘을 수 있으며, 전체 교육과정 구성상으로 볼 때 교과 교육 내용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

여기서 관련이 있다고 본 국어교육과 정보통신기술 교육의 내용은 다른 말로 하자면, 중복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이를 굳이 국어교육의 내용인가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컴퓨터 교육의 내용인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어교육에서 이를 간과할 것인가 교육 내용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이제 비단 컴퓨터 교육의 내용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교과와 영역으로 통합, 보편화되어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단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국어교육의 내용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

(3)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국어교육과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관계를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볼 때, 즉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가지는 성격은 무엇인가? 국어교육의 내용으로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다룰 때 국어교육에 생기는 변화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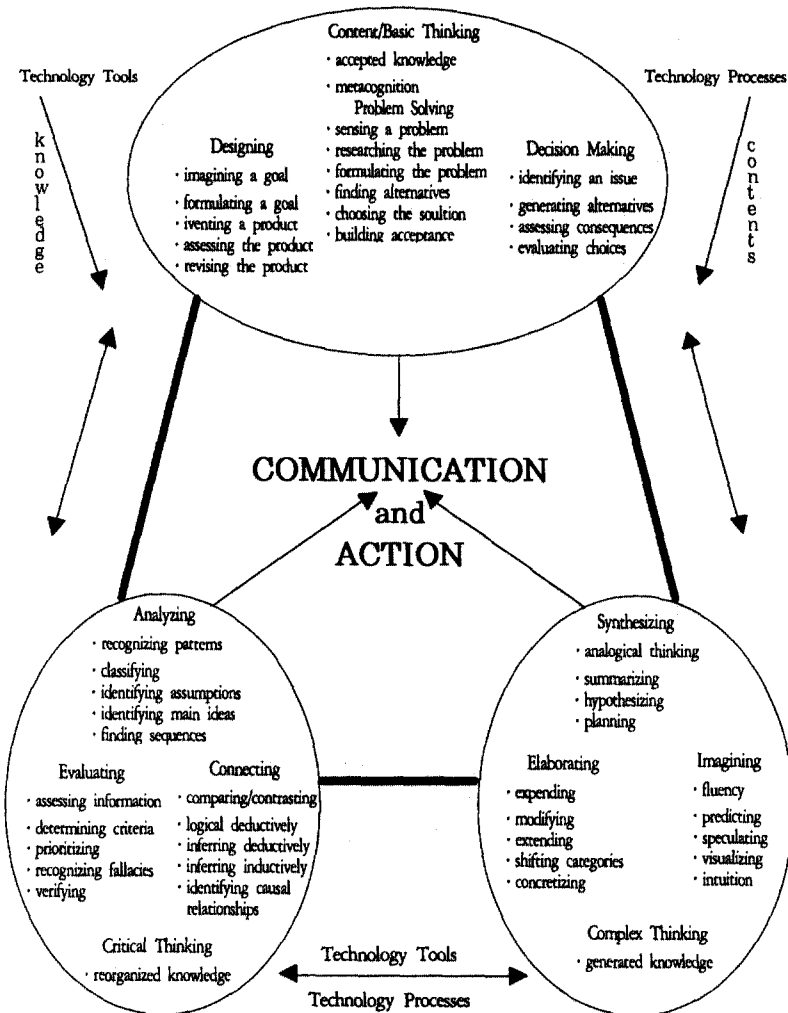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국어교육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교육 방법이나 평가가 아니라 내용과 관련을 짓는 것은 국어교육과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결합이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국어교육 '내용'이기 때문이다. 내용 차원에서 접근할 때,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혹은 인터넷 매체의 도입은 교육의 자료가 바뀌거나 활동의 방식이 바뀌거나 하는 현상적 차

원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고의 방식'을 바꾸고, '표현의 방식'을 바꾸며,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을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일으킨다.¹⁵⁾ 단적으로 말하자면, 국어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의 통합은 물리적, 부가적 결합 관계가 아니라 화학적, 유기적 결합이다.

이러한 교육과 기술의 화학적 통합을 캐나다의 캘거리시 교육청에서 기술과 사고의 관계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 모델에서는 사고의 단계를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고, 이들 각 유형에서 기술이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어교육의 각 내용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관련될 때 어떤 국어교육 내용과 통합되고, 어떤 새로운 국어교육 내용이 만들어지며, 어떤 국어교육 내용들이 다른 내용에 포함되어 들어가는지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15) *Draft Curriculum Model, Calgary Board of Education Technology Plan*, April, 1997, p.6

Technology and Thinking - a Relationship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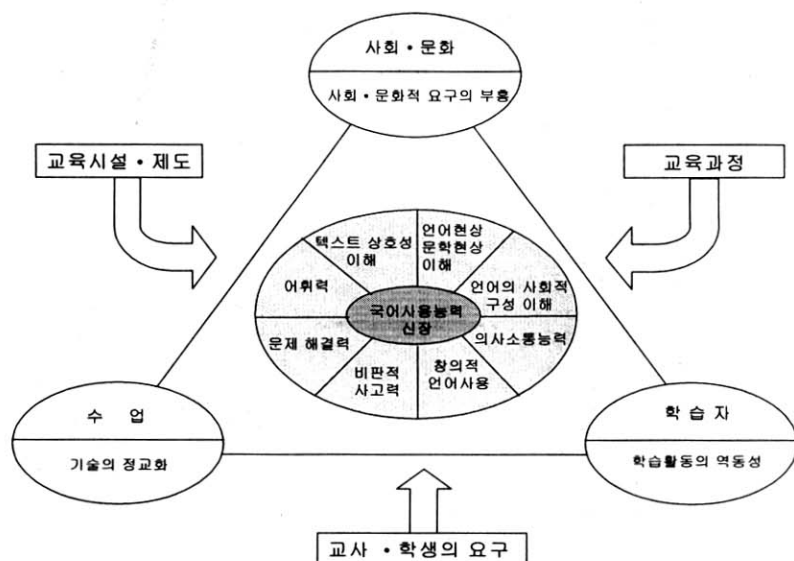


The foundational precesses develop critical and complex thinking.

Adapted from the Iowa State Thinking Model

국어과에서의 ICT 활용 방법을 구안한 연구 중에서 제시된 ICT 활용 유형 목표가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활용 방법이라기보다는 ICT를 활용하였을 때 설정될 수 있는 국어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유형에 따른 목표 및 내용은 교육시설·제도, 교육과정, 교사·학생의 요구라는 교육 체제 면에서 사회·문화적 요구에의 부응, 수업 기술의 정교화, 학습자 학습 활동의 역동성을 주요 변인으로 하여,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상위 목표로 하고, 텍스트 상호성 이해, 어휘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언어 사용, 의사소통 능력, 언어의 사회적 구성 이해, 언어 현상·문화 현상 이해 등으로 하위 목표를 설정하였다.



16) 김근수 외, 「국어과에서의 ICT 활용 교육 방법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64쪽

이러한 국어과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유형은 그 체계성, 논리적 정합성의 문제를 떠나서, 국어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이 만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¹⁷⁾ 다시 말해 이러한 국어교육의 목표, 내용의 유형화 자체가 사회 문화적 요구에 의한 새로운 국어목표 및 내용 설정을 시도한 것이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고려하고, 교수·학습의 다양함을 추구하는 교사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기술이 국어교육에 변화를 가하는 부분이 어떤 곳 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향 관계에 따라, 변화해야 할 국어교육의 내용도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1) 표현 및 이해 자료의 변화, 2) 의사소통 공간과 방식의 변화, 3) 학습자 활동의 강화 등이다.

표현 및 이해 자료의 변화는 굳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아닌 다른 매체를 국어교육에 도입한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큰 변화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것은 동일한 텍스트를 읽어내는 방식이 달라진대거나, 텍스트와 동시에 이미지화된 자료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대거나, 표현 자료 역시 텍스트적 표현뿐만 아니라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등 읽고, 보고, 쓰고, 만드는 활동들이 다양화되고 그 속에서 다루어지는 자료 역시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어교육의 내용 속에 읽기 방법의 다양성을 수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현 매체가 달라진 자료는 읽는 혹은 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매체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료를 접할 때에는 비판적으로 읽고, 보고, 쓰도록 하는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의사소통 공간과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때 특히 크게 나타난다. 정보통신기술은 이메일의 사용이나 게시판 활용, 채팅 등

17)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유형들을 그대로 국어과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하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여는 온라인 문화 공간을 만들어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토론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의사소통의 층위를 다양화하고, 개인적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집단적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였다.

국어교육의 주요 목표와 내용에 의사소통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의사소통 공간과 방식의 변화는 국어교육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된다. 원래 국어교육에 있어서 토론은 내용이자 방법이었다. 따라서 의사소통 공간과 방식의 변화를 국어교육의 내용에 반영할 때에는 내용 차원과 방법 차원을 구별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 활동의 강화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해 학습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해지고, 방식이 다양해졌으며, 학습자 스스로의 요구와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아졌음을 말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은 학습자의 표현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학습자가 원하는 만큼 다양하고 편리하게, 창의적으로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국어교육의 내용과 관련지을 때, 생길 수 있는 혹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상의 변화가 존재한다. 이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국어과 교육과정 속에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4. 정보통신기술과 국어교육의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구안

앞에서도 보았듯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 등 매체 활용 관련 진술은 전체 국어교육의 내용 체계와의 관련성 없이 각 영역별 내용 항목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아직까지는 국어교육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도구 혹은 방법의 차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어교육 내용 체계와의 정합적이고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국어교육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국어과 교육과정을 위해 내용 체계를 점검해 보고 구안해 보고자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 구성은 기존의 교육과정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학습자의 언어 사용 및 활동 층위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과 지식 교육의 성격을 지니는 국어 지식 영역, 학습자의 활동과 지식 교육 모두를 포괄하는 문학 영역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영역이 나열되어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 왜 이런 구성을 지니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국어교육의 내용이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과 학습자의 활동 범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어과 고유의 내용 영역은 교육되어야 할 내용 및 지식과 학습자의 활동(언어 사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구성의 층위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제시되고 있는 방식처럼 국어과의 내용 영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바, 정보통신기술을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통합,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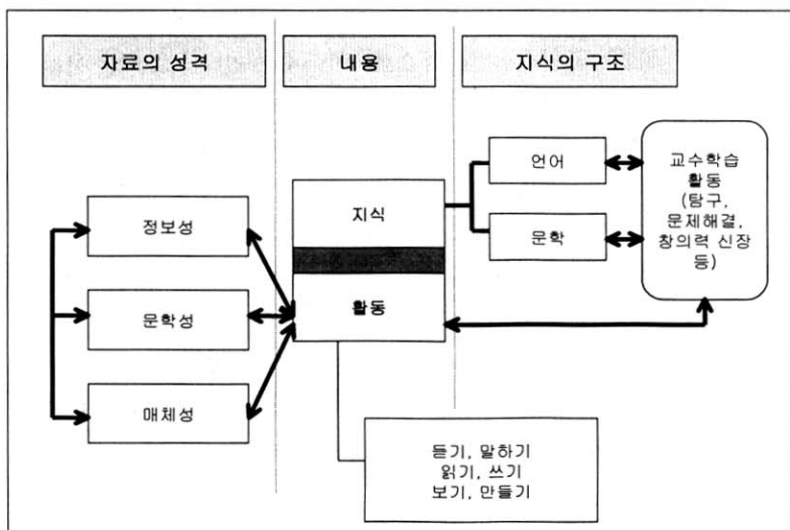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구조화해 보았다. 우선 국어교육 고유의 내용이자 목표인 지식과 활동¹⁸⁾을 주요 범주로 놓고, 이때 다루어지는 자료의 성격과 지식의 구조 범주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 영역을 체계화한 것이다.

지식 범주의 국어교육 내용일 경우에는 그 지식의 구조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크게 언어(사용) 지식과 문학 지식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

18)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의 '태도'항은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은 실제 교수-학습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과 통합적으로 다루어진다.

활동 범주의 국어교육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보기, 만들기 등의 활동이 주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요한 영역 설정이 어떤 자료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위에서 보듯이 이러한 방식으로 국어교육의 내용 체계를 설정하였을 때,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같은 매체 범주¹⁹⁾는 자료 범주와 내용 범주의 활동과 관련된다.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의 전체적인 체계를 이렇게 구성하게 된 것은 현재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크게 언어(국어) 사용, 국어지식, 문학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영역은 각기 지식, 활동, 지식과 활동 등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의 범주로는 체계화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국어) 사용은

19) 여기서 이제까지 논의한 정보통신기술 부분이 아닌 '매체'로 표현한 것은 국어교육의 전체 내용 영역으로 보았을 때에는 '정보통신기술'보다는 '매체'라는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국어교육 내용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활동 범주로, 언어와 문학은 지식 범주로 우선 나누어 지식 범주에서 언어와 문학 영역은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활동 범주에서는 활동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보기, 만들기 등의 여섯 가지로 정의하고 활동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정보성 자료인가 문학적 자료인가, 매체 변용 자료인가로 나누었다.

매체 부분을 이렇게 별도로 설정해 본 것은, 이제 국어교육에서 매체 언어 및 활용 영역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디오, 만화, 라디오, 신문 등 현대에 통용되는 거의 모든 매체 자료가 국어교육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체 활용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어교육 활동은 기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아 보기와 만들기 활동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을 때 달라지는 것은, 기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을 나누는 상위 범주로 '내용'을 두어, 국어교육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 범주를 그 성격에 따라 '지식'과 '활동'으로 체계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의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주로 국어지식과 문학 영역과 관련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때 반드시 교수·학습 활동 차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영역 체계 안에 표현하였다. 그런데 지식의 구조에는 언어 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원리적 지식도 함께 필요할 것이므로, '국어지식'이라 하지 않고 '언어'라 하여 포괄적으로 지칭하였다.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활동'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보기 등의 학습자가 성취하고 수행해야 할 영역을 의미한다. 이때 활동은 학습자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듣기나 읽기, 보기 등의 활동은 특히 대부분 관련된 자료를 함께 필요로 하므로 '자료의 성격' 범주를 설정하여 정보, 문학, 매체 등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국어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할 때의 전제는 이들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는 구역의 의미가 아니라, 이 영역이 상호 관련됨으로써 국어교육의 내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즉 위의 그림에서 영역의 설정이나 하위 영역을 구분지어 표현한 것은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 관련의 결

과물로서 나오게 될 국어교육 내용 이전의 체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내용 개발의 구조가 되어 작용하며, 개발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실제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을 위한 교과서 및 교재 개발의 기반이 되고, 이 과정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방법, 평가가 함께 융합될 것이다. 따라서 차후에 이루어져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용 체계의 적합성 검토와 새로운 내용 체계에 따른 내용 개발이라 할 수 있다.

5. 향후 과제

이 연구의 출발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인터넷 매체의 도입이 국어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였다. 그리고 지금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단지 도구적 수단으로서만 여겨지고, 도구적 활용을 통해 내용이 함께 바뀌고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여기서 시도한 정보통신기술의 특성과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비교, 정보통신기술과 국어교육의 통합 교육과정 구안이 얼마나 효용성 있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검증과정이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새로이 시도되는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하위 내용 개발에 있어서 국어교육적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입된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국어 교육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 혹은 정보통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달라진 국어교육의 내용이 타당한 것인가, 정보통신기술 교육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습자 능력 수준에 맞게 도입하였는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좀더 나아가서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국어 교육적 사고의 틀, 국어교육 능력 수준의 개념, 교육자료 개발의 방법론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교육적 내용 요소의 배치, 교육 내용이 요구하고 있는 학습자 수준

및 능력,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매체 자료의 형태 등 국어교육 내용의 위계화와 체계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습자가 지닌 향유 차원의 변화가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문화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필요한 이러한 과제들을 남기게 된 필자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역량 있는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하여 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진다. 정보통신기술을 국어교육에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강숙희 외, 「초·중등 사이버교육체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2
- 곽병선 외, 『전자 교과서 개발 방안 연구(1)』, 한국교과서연구재단, 1997
- 교육부,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 지침」, 2000
- 김근수, 박인기, 서유경, 서태진, 함 옥, 이지영, 안수진, 「국어과에서의 ICT 활용 교육 방법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 김대행, 「국어교육과 미디어 교육」,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 98한국국어교육연구회 봄 학술대회 발표 자료, 1998
- 김동환, 이도영, 염은열, 서유경,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 매체언어의 소통 원리와 교육적 대상화의 방법」,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0
- 김수정, 「한국어 교사를 위한 멀티미디어자료 개발에 대한 소고」,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국어교육』 제106호, 2001
- 류수열, 「매체 경험의 국어교육적 의의-판소리의 하이퍼텍스트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신청어문』, 2001
-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1998), 『98 사이버학습 정보 개발』, 사업보고 PR 98-14
- 박인기, 「사이버 문학과 문학교육」, 문학과교육연구회, 『문학과 교육』 제5호, 2001 봄

- 백영균, 「사이버교육체제의 개념 및 필요성」, 『사이버교육의 이해』,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 서유경, 「e-Learning 체제에서의 고전문학교육 방법 탐색」, 『고전문학교육』 제5집, 청관고전문학회, 2003
- 서유경, 『인터넷 매체와 국어교육』, 역락, 2002
- 서 혁, 「국어교육 정보화의 실태와 문제점」, 『국어교육학연구』 제9집, 국어교육학회, 1999
- 여운방, 서유경, 서정희, 신성균, 조정우, 채보영, 「전자교과서 설계 지침 및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
- 이인숙, 『e 러닝 -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문음사, 2002
- 이채연, 「WBI를 이용한 국어교과 개별화 수업설계와 활성화 방안」,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국어교육』 제96호, 1998
- 이채연, 「인터넷의 매체 언어성과 국어 교재화 탐색」,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국어교육』 제104호, 2001
- 이철환, 김영애, 이원규, 노석구, 김성렬, 한선관 외, 「초·중등학생 ICT 활용 능력 기준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 최미숙, 「정보화 시대의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 : '매체(media)'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 2000
- 최병우, 「문학교육에 있어 다매체 환경의 활용」, 문학교육학회, 『문학교육학』 제2호, 1998
- 최병우, 이채연, 최지현,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 매체 언어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0
- 최상근, 강숙희, 전인식, 정광훈, 방정숙, 「초·중등 사이버교육체제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최영환, 「매체의 변화와 언어기능 교육의 역동화」,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 98한국국어교육연구회 봄 학술대회 발표 자료, 1998
- 최지현,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문학 생활화 방안」, 문학교육학회, 2002 봄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초록〉

국어과 교육과정과 정보통신기술(ICT)의 통합을 위한 내용 체계 고찰

서 유 경

이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국어교육에서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접근이 인터넷이라는 '매체 언어'의 근본적 성격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수업이나 학습의 도구라는 방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내용에 나타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내용은 명확한 도입 맥락에 대한 규정이 없이 산발적으로 항목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 매체 활용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합적으로 수용하여 내용 체계를 구안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행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고, 매체 활용 및 정보통신기술을 국어과 교육과정에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를 탐구하였다. 국어교육과 ICT의 관련성은 '비판 활동', '컴퓨터로 쓰기', '의사소통'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화 내용은 '표현 및 이해 자료의 변화', '의사소통 공간과 방식의 변화', '학습자 활동의 강화'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매체 및 정보통신기술 영역을 포함하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국어교육의 전체 내용을 '지식'과 '활동' 영역으로 나누고, 이들 각각의 하위 영역에서 '자료'의 측면과 '지식의 구조'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정보통신기술 영역을 포함하는 '매체 활용' 범주는 '활동' 영역과 '자료' 영역의 하위 요소로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구안해 보았다.

【핵심어】 국어과 교육과정, 정보통신기술, 매체 활용, 통합

〈Abstract〉

A Study on Content-Structure of Curriculum for Adapting ICT to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Seo, Yu-kyung

Until now, the existing studies about application of internet media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was focused in instrument-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But this paper is objected that application of internet media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should be studied in view of original character of INTERNET as 'media language'.

Especially 7th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urriculum's content-structure and contents show the elemen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n contents fragmentarily without obvious viewpoint of introduction. Therefore this paper takes aim at synthetic acceptance of media application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curriculum as well as concreteness of content-structure.

To the this purpose, first we looked into the content-structure of the current 7th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curriculum. And then we researched how application of media and ICT was applied on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curriculum.

And from this point of view, we considered transformation contex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urriculum is

'transformation of expression and understanding', 'transformation of communication space and methods', 'strengthening of learner's activity'.

On the basis of this context, we regarded that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curriculum including media and ICT fields could be divided the whole content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into 'knowledge' field and 'activity' field. Besides we considered a low ranking field of 'knowledge' and 'activity' is diversified under the aspects of 'material' and 'knowledge structure'. We regarded category of 'media application' including ICT fields as a low ranking elements of 'activity' and 'data' fields, dependent on this point, we embodied content-structure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curriculum.

【Key Word】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curriculum,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application of media, synthetic acceptance